

새로운 지구사와 서발턴 연구의 도전
— ‘아래로부터의 지구사’를 위한 변명

Angelika Epple

새로운 지구사와 서발턴 연구의 도전 - ‘아래로부터의 지구사’를 위한 변명,

in: 로컬리티 인문학, vol. 3, 2010, S. 141-160.

New Global History and the challenge of Subaltern Studies. Plea for a Global History from Below, in: The Journal of Localitology, vol 3, 2010, S. 161-179
(= englische Übersetzung des koreanischen Artikels)

로컬리티 인문학 3 별쇄

2010. 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새로운 지구사와 서발턴 연구의 도전 — ‘아래로부터의 지구사’를 위한 변명

Angelika Epple*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유럽과 미국의 역사학계에서 대립하는 두 접근법, 즉 새로운 지구사와 서발턴 연구를 결합시킨다. 새로운 지구사는 일국적 역사가들이 아니라 “지구호”의 역사(브루스 매즐리쉬)에 초점을 맞추어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런 제안과 서발턴 연구그룹, 특히 디페쉬 차크라바티와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의 비판을 대면시켜 봄으로써, 본고는 서구의 역사적 사고가 새로운 지구사에 심대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 새로운 지구사는 익명적인 전지구적 구조들에 집중한 나머지 개개의 경험들을 담지 못하여 유럽 중심주의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반대로, 서발턴 연구의 접근법은 전지구적 구조들을 파악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는 결론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지구사’를 제안한다. 이 ‘아래로부터의 지구사’는 서발턴 연구의 도전과 맥을 같이 하며, 그들의 비판을 지구사에 적용한다. 역사가들이 해야 할 것은 어떻게 로컬적인 것이 전지구적으로 형성되는지, 동시에 어떻게 전지구적인 것이 로컬적으로 구성되는지를 설명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역사가들은 자신의 서사가 내포한 “중심주의”를, 유럽, 아시아, 세계 그 어느 지역에 초점을 맞춘 것이든, 명시화하여 드러내어야 한다.

주제어: 새로운 지구사, 서발턴 연구, 유럽 중심주의, 유럽의 지방화,
아래로부터의 지구사

* 빌레펠트대학교 사학과 교수(aepple@uni-bielefeld.de)

| 차례 |

1. 새로운 지구사
2. 서발턴 연구그룹
3. 아래로부터의 지구사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문제들은 세계화(globalisation)의 결과로 초래된 것들이다. 환경적 변화로 파생된 문제들, 즉 지구 온난화나 유해성 질병 등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걸쳐서 자행되고 있는 인종 청소나 테러, 엄청난 폭력들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분쟁은 종종 지역적인 갈등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사실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결과 중 한 가지이다.¹⁾ 요컨대, 세계화는 세계적인 발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이 지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결합시킨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세계화가 항상 지역과 세계의 결합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아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화는(서구식) 현대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겨졌다. 세계화는 성공적인 ‘수출’ 신화의 일부분이었다. 전 세계에 민주주의, 번영으로 가는 길의 포석을 까는 일이었으며, 소위 개발도상국을 위해 경제 발전의 규모를 확장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세계화’라는 단어가 전문 용어로 정착되고 개념 또한 정립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줄 전문가 또한 필요하게 되었다. 경제학자, 정치 과학자, 사회학자들이 우선적으로 이 범주에 적합한 인물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화는 상호 작용, 의사소통, 이동, 유동성 등을 촉진시키는, 주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었다. 철의 장막

1) Arjun Appadurai, *Fear of Small Numbers: An Essay on the Geography of Anger*, Duke University Press, 2006, p.2f.

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자 세계화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전면으로 드러났다. 세계화 과정이 시작될 때부터 존재했던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따르면, 세계화의 어두운 단면이 점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개발도상국가와 환경에 가해지는 착취의 새로운 측면을 식민주의 시대가 종결된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제국주의의 한 형태로 해석한다.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세계화는 전 세계를 상업적으로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권주의적 문화 동질화(homogenisation)까지 낳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할 때,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²⁾는 세계화와 동의어이다. “행복한 동질성”³⁾의 시대는 마침내 종말을 맞이했다.

세계화를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견해와 해석은 기본적으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세계화는 특정한 주체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anonymous process)이다. 둘째, 두 가지 견해 모두는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숨겨진 추동력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으며, 그 추동력은 서구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셋째, 세계화에는 이전의 어떠한 선배(predecessor)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세계화 과정은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는 최근의 변화에 대한 관심에만 집중된다. 결론적으로,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패트릭 매닝(Patrick Manning)에 따르면, 미국의 학생들이 ‘세계사’ 과목을 개설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이 역사학의 하부

2) George Ritzer,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An Investigation into the Changing Character of Contemporary Social Life*, Thousand Oaks/California, 1993.

3) Anthony G. Hopkins, *Global History: Interactions between the Universal and the Loc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6.

갈래(세계사)는 영역을 확장했다.⁴⁾ 물론, ‘세계의 역사’ (“World History”)라는 것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학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세계사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위에서 언급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진행 과정이라는 것, 서구화·현대화의 연장이자 심화라는 관점들 말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세계사는 세계화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상술한 접근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단지 현재의 사건과 현상만을 분석하는 것은 세계화를 너무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해하게끔 만든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복했다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역사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여전히 오래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역사학은 산업화의 역사, 경제적 교역과 자금 이동의 제도화와 하부구조 등과 같은 (익명의) 구조적인 문제에 우선 천착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금도 간단하게 말한다면 “서구 세계와 나머지 세계”로 요약할 수 있는 거대 담론으로 다시 회귀한다.⁵⁾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의 역사학계 내에서 두 가지 모순된 접근법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지구사”라는 개념과 “서발턴 연구 그룹”이 표방하는 관점에 대해 말해보자.⁶⁾

다음 장에서 이 두 가지 입장을 좀 더 심층적으로 개념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새로운 지구사 분야에 있어 가장 저명한 역사학자인 브루스 매즐리쉬(Bruce Mazlish)의 주장을 정리해서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이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 다음, 아시아 서발턴 연구그룹의 저명한

4) Patrick Manning, "Nordamerikanische Ansätze zur Globalgeschichte", Birgitt Schäbler ed., *Area Studies und die Welt. Weltregionen und neue Globalgeschichte*, Vienna, pp.59~89.

5) Stuart Hall, "The West and the Rest: Discourse and Power", Stuart Hall and Gieben Bram eds., *Formation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pp.275~320.

6) 서발턴 연구 저널은 1982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주창자 디페시 차크라바티(Dipesh Chakrabarty)와 가야트리 샤프라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의 논의와 대조시켜 살펴보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 나는 서발턴 연구그룹의 주장을 지구사에 적용시킬 수 있음에 대해 논의할 것인데, 이는 “아래에서부터의 지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새로운 지구사

브루스 매즐리쉬에 따르면, 세계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력을 얻었다. “새로운 지구사”에 관한 표제 논문을 작성하면서, 세계사(world history)는 유럽인의 시각이 더 이상의 생명력을 지니기 힘들다는 인식의 결과물로 등장했다.⁷⁾ 그러나 매즐리쉬가 정말로 유럽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역사접근을 거부했는가 여부는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만 할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전개해 나간다. “세계”(world)라는 개념은 중세 영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이 단어는 ‘인간 존재’를 의미했다. “이것이 지칭하는 대상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지구’이다. (중략)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세계사’는 신세계(New World)를 발견한 이후 중요성이 커지게 된 개념이다. 보다 최근에는 각각 다른 발전 정도에 따라 제1세계(a first world), 제2세계(a second world), 제3세계(a third world)라는 단어를 사용해왔다”고 매즐리쉬는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⁸⁾ 이 경우 ‘세계’(world)라는 단어를 ‘지구’(global)로 대체할 수 없다.

7) Bruce Mazlish, "Global history and World History", Bruce Mazlish and Akira Iriye eds., *The Global History Reader*, New York, London: Routledge, 2005, pp.16~21. 「새로운 지구사」("New Global History")라는 이 논문의 좀 더 긴 버전은 <http://web.mit.edu/newglobalhistory/articles.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1492년 이후의 '신세계'를 '신 지구'로 바꾸어 말하거나, '제3세계' 대신에 "제3지구"라고 일컫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매즐리쉬는 '세계사'에 대한 자신의 정의가 동시에 유럽중심주의적 관점의 계승임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우리가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를 각각 다른 수준의 발전 정도로 말할 때, 이미 우리는 막스 베버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특정한 역사적인 발전 결과물을 이상적인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유럽과 미국의 역사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지침이 된다. 이러한 관점 속에는, 세계의 어떤 지역도 아직까지 서구를 따라잡지 못했으며 결코 그러지 못하리라는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소위 말하는 '신세계'가 1492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 곳의 주민들에게 있어서 하등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메리카 대륙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유럽보다 어리지 않다. 세계는 다양한 지역들로 나누어져 있고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지역들이 이미 한 지역이 거쳐간 발전 단계를 뒤따르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우리가 역사에 대한 막스 베버의 관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슈무엘 아이젠스타트(Shmuel Eisenstadt)의 '다중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이란 개념을 이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는 유럽중심주의적 함의에서부터 근대성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막스 베버의 저작에서 파생한 근대성 개념에 충실하다.⁹⁾ 그러나 아이젠스타트의 '다중 근대성'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그는 '동중성'(the ideas of homogeneous)은 명확히 정의내릴 수 있는

8) Mazlish, op. cit., p.18.

9) Shmuel Eisenstadt, "Multiple Modernities", *Daedalus*, vol.129/1, 2000, pp.1~29.

개념이라는 생각을 고수한다.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들은 단일한 전체(homogeneous entity)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차크라바티가 언급한 것처럼, 근대성이라는 개념은 역사를 항상 유럽 중심주의적으로 사유했기에 발생한 결과물이다.

매즐리쉬는 세계사라는 용어에 담겨진 유럽중심주의의 내포를 지적해 내지는 못했지만, 이 개념을 만족스럽게 여기지도 않았다. '세계'라는 용어를 '지구'라는 용어로 대체하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매즐리쉬에 의하면 '지구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과 어떻게 다른가? 그의 표현을 빌자면, '지구적'이라는 단어는 "우주의 개념을 포함하는 단어이다. 즉, 우리 행성 바깥에 서서 '지구 호'(Spaceship Earth)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말한다는 것이다. (중략) 이 새로운 관점은 새로운 지구사에 접근하는 열쇠 중 하나인데, 이 새로운 시간적/공간적 위치 확정 작업을 관찰하듯이 인식하는 것은 가능하다."¹⁰⁾ 새로운 지구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새로운 지구사는 세계화의 진행 과정과 역사만을 다룬다. 다른 논문을 통해 그는 "새로운 지구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새로운 지구사는 '세계화'를 둘러싸고 있는 역동적인 요소와 진행 과정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하며, 특정한 정보와 새롭게 진화하는 분석적 방법론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¹¹⁾ 매즐리쉬에 따르면, "새로운 지구사는 지역적, 국가적, 국지적인 차원보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가장 잘 파악되는 과정이다."¹²⁾

10) Mazlish, op. cit., p.8.

11) 브루스 매즐리쉬의 논문은 아직까지는 스페인어로만 발표되었다. "La historia se hace Historia: La Historia Mundial y la Nueva Historia Global", *The Annual, Memoria y Civilizacion* 4, 2001, pp.5~7. 권위 있는 영어 번역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지구사 웹사이트(New Global History Website) <http://web.mit.edu/newglobalhistory/articles.html>를 참고.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자. 매즐리쉬에 따르면, 일반적인 세계사와 대조적인 개념의 지구사는 단순한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매즐리쉬의 지구 호 개념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가장 시급한 문제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중심주의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매즐리쉬의 주장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것이다. 유럽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논의들은 19세기 미국과 유럽에서 역사가 대학의 한 학문 갈래가 된 이후의 논의와 궤를 같이 해야만 한다. 그러나 매즐리쉬는 역사에 대한 서구 중심적 접근 방식이 유럽 중심주의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만약 우리가 지구 호라는 은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 행성 바깥에 누가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만 한다. 누가 지구사를 관찰하고 묘사하고 있단 말인가? 그(혹은 그녀)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들에 대답을 찾고자 애쓰면, 우리는(지구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에게 초월적인 위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유럽중심주의에서 파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역사서술은 결코 사건을 담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유럽선 여행과 같은 아니다. 지구사적 역사가가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개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론적인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의를 좀 더 진행해보자. 우리 행성 바깥의 지구사적 역사가에 대한 매즐리쉬의 요청은 19세기 유럽의 역사기록학에서부터 그 전통을 찾을 수 있는 과학적인 객관성이라는 개념에 기대고 있다. 이 개념은 이후 식민화된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었고, 이후 학문적 역사서술의 영역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후 차크라바티의 서구 사관에 대한 비판에 대한 논의로 미루어두기로 하자.¹³⁾ 이러한 측면

12) Mazlish, op. cit, p.9.

에서, '새로운 지구사'라는 시각은 유럽 중심주의라는 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유럽의 지방화”(Provincializing Europe)에 관한 한 권의 책과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디페시 차크라바티는 이 같은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제, 서발턴 연구그룹의 이야기로 넘어갈 때가 된 듯하다.

2. 서발턴 연구그룹

서발턴 연구그룹의 학자들은 1982년 시리즈물이 처음 출판된 이후, 유럽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하지만 유럽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목표였던 것은 아니다. 이들이 주로 다루던 연구의 부수적인 결과물로 유럽 중심주의의 극복이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를 자아낸다. 그 연속 기획물의 편집자 중 한 명이었던 파르타 차테르지(Partha Chatterjee)에 따르면, 그들은 처음에 두 가지 주요한 관심사를 공유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식민주의자들과 민족주의 엘리트들이 취하는 정치적 목표와 방법론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다른 한편으로는 하위 주체 계층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주제였다. 두 번째로 그들이 주목했던 주제는 하위 주체 의식의 자율성에 대한 것이었다.”¹⁴⁾ 지난 30년 동안 이 두 가지 주제는 계속 변형되었는데, 능동적인 역사적 주체로서의 하위 주체나 하위 주체의 자율

13) 에로 다음을 보라. Dipesh Chakrabarty, "A Global and Multicultural "Discipline" of History," *History and Theory*, Vol.46, 2006.

14) 아시아 서발턴 연구 그룹의 발전에 대한 간략한 총괄이 필요하면 다음 책을 참고하시오. Partha Chatterjee, "A Brief History of Subaltern Studie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22, London, 2001, pp.1537 ~ 1541; Gunilla Budde, Sebastian Conrad, Oliver Janz eds., *Transnationale Geschichte, Themen, Tendenzen und Theorien*, Göttingen, 2006, pp.94 ~ 105; here p.95.

성과 관련된 생각들은 폐기되었다.¹⁵⁾ 하위 주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지만, ‘헤게모니’와 헤게모니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이해하는 일은 그람시의 ‘하위 주체’ 개념과 함께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들은 “남아시아 역사에서 하위 주체를 조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11권 이상의 서적을 집필했다.¹⁶⁾ 그람시의 개념의 세부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거나 서발턴 연구 그룹이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를 다루는 일은 본고의 영역 밖의 문제가 될 것이다. 서발턴 연구그룹은 하나의 사상 학파라기보다 프로젝트 팀에 가까우므로, 나는 독일 역사학자로서 내 저작에 도움이 되고 유용한 몇 가지 입장과 가정만을 검토할 것이다. 나는 인도 역사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를 통틀어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그것이 독일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혹은 어디에 근원을 두든지 간에 심대한 변화를 겪어야만 한다고 확신한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나는 서구 역사관에 대한 차크라바티의 논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이후, 호미 바바의 혼종성과 하위 주체의 목소리라는 급진적인 도전 과제에 천착했던 가야트리 샤크라보티 스피박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차크라바티는, “유럽은 우리가 ‘인도’라고 부르는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역사에서 주권적, 이론적 주체(the sovereign, theoretical subject)로 남아 있다”고 말한다.¹⁷⁾ 유럽의 역사가들은 비서양지역의 역사를 무시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모방할 수 없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무지”(asymmetric ignorance)는 유럽을 “말 없

15) *Ibid.*, p.99.

16) "Preface", *Subaltern Studies Journal*, Vol.10, 1999.

17) Dipesh Chakrabarty,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ity and the Critique of History", *Cultural Studies*, vol.6, no.3, 1992, p.337.

는 지시체”(silent referent)로 자리매김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매일 목격할 수 있다.

서구 역사 이론 선집에 대한 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샤프트라바티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비대칭적인 무지”의 패러독스 상황을 그려낸다. 유럽의 역사학계는 19세기 인도 역사 분야에서 권위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비서구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서구의 역사 서술 기법과 조우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사회는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고 접근하는 자신들만의 학문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차크라바티는 설명한다. 그런데 정말로 궁금한 점은, “왜 전 세계의 전문 역사학자들은 동일한 지구촌 문화 범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다.¹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학문의 역사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의 자료들은, 역사가가 판관의 위치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학문적 방법론을 도입한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 레오폴드 폰 랑케를 모델로 삼고 있었다. 역사가는 과거의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역사학자들은 학문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즉 문헌 연구와 자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한다. 나의 연구에서 나온 결론을 덧붙이자면, 역사학자들은 동시대의 구술 전승물들을 경시하였으며 서술된 자료만을 참고하여 자기 주장의 진실성을 입증해야만 했다.¹⁹⁾ 논증 방식의 변화는 결과

18) Dipesh Chakrabarty, "A Global and Multicultural "Discipline" of History", *History and Theory*, vol. 46, 2006, p.104.

19) 중국 역사기록학의 대가 마사유키 사토(Masayuki Sato)를 인용하면서 차크라바티는 랑케(Ranke)의 프로그램의 목록에 인과관계에 대한 요구를 첨가시킨다. 나는 이것이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한다. 사실 랑케는 인과성이라는 논리로부터 역사 서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결론을 열어놓고 있으므로, 여기서 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최근에 나는 다음과 같은 저서에서 좀 더 심오한 질문을 다루고 있다. Angelika Eppele, *Questioning the Canon: Popular Historiography by Women in Britain and Germany(1750~1850)*; Sylvia Paletschek ed., *Popular Historiographies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German Historical Perspectives*

에도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진실을 증명하는 방식은 민중 역사가와 전문 역사학자의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였다. 대중 역사가의 목소리는 경시되어 역사의 정전에서 배제되었다.

서구 역사학계의 이같은 배제와 경시의 기법들은 식민주의 정부가 대학을 도입하면서 19세기 인도와 다른 사회에도 전파되었다.²⁰⁾

이 새로운 종류의 역사는 “역사를 생산하는 제도적인 장소가 결정적으로 교체”²¹⁾된 덕분에 비로소 가능해졌다. 대학은 의미 있고 순수한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다. 전술한 서구 역사관에 관한 책을 저술한 마사유키 사토(Masayuki Sato)는 중국에서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했고, 차크라바티는 인도에서 이같은 변화를 거슬러 올라가 발견한다. 나는 역사학의 전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역사 영역을 좁게 만들었다고 확신한다. 여러 해 동안 여성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정치사와 경제사 너머에 있던 대중 작가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주류 역사학계에서 배척당했다. 중국과 인도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났다. 역사학자들이 이러한 배제된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였다. 그들은 이러한 배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기저에는 젠더화된 근거가 놓여 있었음을 밝혀내기 시작했다.²²⁾

Series, Berghahn Books. 계몽주의와 19세기 역사주의 시기 사이의 독일 역사기록학을 증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은 단지 독일에만 존재한다. Angelika Epple, *Empfindsame Geschichtsschreibung, Eine Geschlechtergeschichte der historiographie zwischen Aufklärung und Historismus*, Köln, Weimar, Wien, 2003.

20) Edward Shils and John Robert, Walter Ruegg ed., *Geschichte der Universität in Europa*, vol. III, München, 2004, p.194.

21) Chakrabarty, 2006, op. cit., p.106.

22) 배타적이고 젠더화된 랑케의 방법론의 영향은 보니 스미스(Bonnie Smith)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Bonnie Smith, "Gender and the Practices of Scientific History: The Seminar and Archival Research in the Nineteenth Centu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0, 1995, pp.1150~1174. 유럽의 역사학에 대해서는, Mary O'Dowd and Ilaria Porciani eds., "History Wopmen", *Storia della Storiografia*, vol. 46, 2004;

인도와 같은 비서양 지역에 서구식 역사서술 기법이 소개되면서 앞서 언급했던 비대칭적 페러독스가 발생했다. 차크라바티는 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도입되기 이전의 인도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민중 역사가들의 서술을 발전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 그는 그 책의 편집자 요른 뤼센(Jörn Rüsen)을 인용하면서 결론 내린다. 뤼센에 따르면, “역사의 문제들”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되돌아와 양값음을 한다”는 것이다.²³⁾

이 말은 서구 사회에 있어 명백히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지구촌화된 매스미디어들은 현재 200년 전 역사학이 얻었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학계 내에서 과열된 의제로 재등장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²⁴⁾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역사학계와 대중문화 사이의 틈새를 공략하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차크라바티는 말한다. 차크라바티는 “세계 모든 곳에서 동일하지 않은 전문적인 역사학을 가능하게 할 지구적인 문화”²⁵⁾의 등장을 위해 문을 열어둔 채 논문을 끝맺는다. 초기 서발턴 연구그룹은 이 문제에 확신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처음 발표된 「하위 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²⁶⁾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가야트리 샤프트라보티 스피박은 제3세

Angelika Epple, Angelika Schaser, *Gendering Historiography. Beyond National Canons*, Frankfurt a. M., New York, 2009.

23) Chakrabarty, 2006, op. cit., p.109.

24) Dipesh Chakrabarty, "History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Keith Jenkins, Sue Morgan and Alun Munslow eds., *Manifestos for History*, Abingdon, New York: Routledge, 2007, pp.77~87.

25) Chakrabarty, 2006, op. cit., p.109.

26) 1988년도 판은 1985년도에 인쇄되었던 강연의 수정 버전이다. 1993년에 「식민 담론과 탈식민주의 이론」(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이라는 저서에 재수록되었으며, 최종본은 1999년도 그녀의 저서 「탈식민주의 사유에 대한 비판」(Colonial Discourse and Post Colonial Theory)에 등장했다. 여기서 그녀는 새로운 종류의 하위 주체가 등장했음을 언급한다.

계의 주체가 서구 담론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는가라는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녀는 서구 비평 전통과 탈식민주의 이론을 무척이나 엄격하게 다룬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녀는 프랑수아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와 질 들뢰즈(Gilles Deleuze)를 “본질주의자, 유토피아적 정치학”²⁷⁾으로 전락했다며 가혹하게 비판한다. 그녀는, “재현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즉 정치에서 ‘누군가를 위해 말한다’는 의미와, 예술과 철학에서 말하는 재현의 의미가 동시에 작동되고 있다”²⁸⁾고 주장한다. 재현이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한 푸코와 들뢰즈는 “억압받는 자들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다”²⁹⁾고 가정하게 된다. 그러나 스피박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위 주체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전체도 아니기 때문에, 하위 주체 의식 또한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때문에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일은 쉽지 않다. 스피박은, 억압받는 자들이 말을 하기 위해 진짜 목소리를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지구사에 내재되어 있는 매우 흥미로워 보이는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한다. 이같은 이의 제기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주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³⁰⁾ 사이드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식민주의 주체를 타자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인식론적 폭력”(“epistemic violence”)을 거부한다. 그러나 그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불확실한 주관으로 타자의 흔적을 불균등하게 삭제하는 현상 이상의 것을 비판한다. 그녀의 비판 대상은 이 집단의 패권화(hegemonisation)까지 포함한다. 물론 유럽 지식인들로 하여금 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

27) Gayatri Chakravorty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Cary Nelson, Lawrence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pp.271 ~313. here p.276.

28) Ibid., p.275.

29) Ibid., p.279.

30) Edward Sai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8.

은 바로 이 인도 엘리트들이긴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화된 하위 주체는 가망 없을 정도로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야만 한다.”³¹⁾

그녀의 논문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면,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 모두가 제한된 성과만을 거두어들이는다고 비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피박은 주체 형성과 세계 구조(global structure)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적한다. 세계 자본주의와 민족국가 연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권력의 미시 구조를 설명해내지 못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 이론들-주체 형성에 관한 이론들로 논점을 옮겨야만 한다. 여기서 주체의 형성은 미시논리적으로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작동하여 사고 과정(macrology)을 경직시키는 이해관계를 낳는다.”³²⁾ 세계 구조와 주체 형성 과정의 관계를 고찰하는 작업을 통해, 이제 나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가 된 듯하다. 역사에 대한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결합을 희망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3. 아래로부터의 지구사

지구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은 세계화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 과정의 사실성(史實性)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구사는 학문의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좁게 만듦으로써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지구사는, 서구 역사에만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관행들이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음을

31) Spivak, op. cit., p.284.

32) Ibid., p.279.

인정한다는 면에서 학문의 영역을 넓혀준다. 그러나 세계화의 역사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학문의 영역을 좁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브루스 매즐리쉬의 작업은 유럽 중심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부족했다. 우리가 디페시 차크라바티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유럽의 지방화”는 이같은 주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전문 역사가들은 역사적 사유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만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 세계 다른 지역의 전통이 학문적인 역사 사료에서 배제되기 시작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가야트리 샤크라보티 스피박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타자화는 하위 주체를 단순히 말소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화해 버린다는 사실이다. 세계 구조가 개인이나 지역적 환경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같은 현상은 더욱더 심화된다. 서발턴 연구는 지구적 세계화가 갖는 문제점들을 극한까지 몰고 간다. 서발턴 연구그룹의 구성원들은 지구사가 지구적 구조에만 천착하는 바람에 다양한 지역과 개인의 경험을 서술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할만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역사 연구가 개인 존재를 눈에 띄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모든 주체와 객체가 언제나 이질적이며 분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연구는 하위 주체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드러낼 수 없다. 더 끔찍한 일은, 하위 주체의 목소리에 접근하는 작업이 오히려 지식인들로 하여금 하위 주체화 과정에 동참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들의 주장을 이용함으로써 지구사라는 개념의 약점을 규명하고 이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같은 작업은 내가 “아래로부터의 지구사”라고 부르기를 원하

는 지구사의 개념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아래로부터의 지구사는 위에서 언급했던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지는 않는다.³³⁾ 그러나 이 작업은 스피박이 요청한 것처럼, 세계 구조와 (지역의) 주체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아래로부터의 세계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위주체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하위 주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만 남게 된다. “무엇이 보다 더 생산적인가”의 해답은 “인습에 얽매어 있는 기존 문서들을 다시 읽어나가는 새로운 전략”³⁴⁾이라고 차테르지는 말한다. 만약 “지구적”이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다면, “아래”는 주체 중심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작업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지구사는 서발턴 연구그룹과 아래로부터의 역사 논의 양자 모두에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지구사는 노동자들의 사회사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며,³⁵⁾ 그 연구 영역을 하위 주체나 일상 생활에 국한시킨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래”는 지구적인 구조물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미시적 차원 (microlevel)을 지정해준다. 만약에 우리가 지역의 상류 인사들과 그들이 세계화 과정과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한다면,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역사일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지구사는 미시사 (microhistory)로부터 방법론을 빌려오고,³⁶⁾ 그것을 지구적 문제와 결합

33) 「서발턴 연구 약사」에서 차트리지는 서발턴 연구와 “아래로부터의” 접근방법 사이의 유사성뿐만이 아니라 차이점도 존재함을 강조한다. 그는 “아래로부터의 역사”가 “결코 자본주의적 근대성 그 자체의 존재와 안정성, 적합성에 설득력 있게 도전하지 못했다”고 말한다(Chatterjee, "Bribe History", p.8). 그 당시의 아래로부터의 접근방식에서 역사를 이끌어내는 연구가 필요함을 상기시켜준다는 면에서 그가 옳았다.

34) Ibid., p.96.

35) 아래로부터의 역사적 접근은 1960년대의 프랑스 아날학파의 영향을 받아 발전되었다. 1963년도에 처음 출판된 『영국 노동자 계급의 형성』을 주제로 한 톰슨(E. P. Thompson)의 저작과도 관련되어 있다.

36) Carlo Ginzburg, "Micro-History, Two or Three Things That I Know about it", Carlo

시킨다고 할 수 있다.³⁷⁾ 역사가가 해야만 하는 일은 지역이 지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구적 차원의 일들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졌는가를 그려내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지구사는 이중성에 대한 하위 주체의 이해와 맥이 닿아 있으며, 이는 서구 담론에도 적용 가능하다. 소위 말하는 서구 담론은 더 이상 하위 주체 담론 혹은 그들의 침묵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역사가가 해야만 하는 일은 자신들의 역사적 서술의 유효성이 가지는 좁은 한계에 흠집을 내는 일이다. 그들은 (배제되었던) 대중 주체를 포함시키고, 어떠한 집단이든 일체의 동종화에 저항하고, 무엇보다도 깊이 각인되어 있는 유럽 중심주의적인 서구의 사관을 깨달아야만 한다. 유럽 중심주의이든 종화주의이든 일체의 어떠한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일은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인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은 쫓겨두자. 이 지점에서 나는 철학자 로버트 브랜덤이 쓴 책의 제목을 빌려와 그것을 여기서 논의했던 딜레마에 적용해보고 싶다. 역사가들은 유럽 중심주의를 명시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³⁸⁾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말해지는 것을 읽는 동시에 말해지지 않는 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화 과정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Ginzburg, John Tedeschi and Anne C. Tedeschi eds., *Critical Inquiry*, vol.20, no.1, 1993, pp.10~35.

37) 몇몇 결과물들은 이미 발표되었고 또 앞으로 발표될 것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Lara Putnam, "To Study the Fragments/Whole: Microhistory and the Atlantic World", *Journal of Social History*, 39, 3, 2006, pp.615~630; Angelika Epple, *Das Unternehmen Stollwerck. Eine Mikrogeschichte der Globalisierung*, Frankfurt a. M., New York, 2010.

38) Robert Brandom, *Making it Explicit: Reasoning, Representing, and Discursive Commit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참고문헌 |

- Epple, Angelika, *Empfindsame Geschichtsschreibung. Eine Geschlechtergeschichte der historiographie zwischen Aufklärung und Historismus*, Köln, Weimar, Wien, 2003.
- _____, *Questioning the Canon: Popular Historiography by Women in Britain and Germany(1750-1850)*.
- _____, Angelika Schaser, *Gendering Historiography. Beyond National Canons*, Frankfurt a. M., New York, 2009.
- Hopkins, Anthony G. , *Global History: Interactions between the Universal and the Loc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Appadurai, Arjun, *Fear of Small Numbers: An Essay on the Geography of Anger*, Duke University Press, 2006.
- Smith, Bonnie, "Gender and the Practices of Scientific History: The Seminar and Archival Research in the Nineteenth Centu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100, 1995.
- Mazlish, Bruce, "Global history and World History", Bruce Mazlish and Akira Iriye eds., *The Global History Reader*, New York, London: Routledge, 2005.
- Ginzburg, Carlo, "Micro-History, Two or Three Things That I Know about it", Carlo Ginzburg, John Tedeschi and Anne C. Tedeschi eds., *Critical Inquiry*, vol.20, no.1, 1993.
- Chakrabarty, Dipesh, "A Global and Multicultural "Discipline" of History", *History and Theory*, Vol.46, 2006.
- _____, "History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Keith Jenkins, Sue Morgan and Alun Munslow eds., *Manifestos for History*, Abingdon, New York: Routledge, 2007.
- _____,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ity and the Critique of History", *Cultural Studies*, vol.6, no.3, 1992.
- Said, Edwar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8.
- Spivak, Gayatri Chakravorty, "Can the Subaltern Speak?",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 Ritzer, George,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An Investigation into the Changing Character of Contemporary Social Life*, Thousand Oaks/California, 1993.
- Budde, Gunilla, Sebastian Conrad and Oliver Janz eds., *Transnationale Geschichte, Themen, Tendenzen und Theorien*, Göttingen, 2006.
- Chatterjee, Partha, "A Brief History of Subaltern Studie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22, London, 2001.
- Manning, Patrick, "Nordamerikanische Ansätze zur Globalgeschichte", Birgitt Schäßler ed., *Area Studies und die Welt. Weltregionen und neue Globalgeschichte*, Vienna.
- Brandom, Robert, *Making it Explicit: Reasoning, Representing, and Discursive Commit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Eisenstadt, Shmuel, "Multiple Modernities", *Daedalus*, vol.129/1, 2000.
- Hall, Stuart, "The West and the Rest: Discourse and Power", Stuart Hall and Gieben Bram eds., *Formation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 Subaltern Studies Journal*, Vol.10, 1999.
- <http://web.mit.edu/newglobalhistory/articles.html>.

| Abstract |

New Global History and the Challenge of Subaltern Studies

— Plea for a Global History from Below

Angelika Epple

This article links together two conflicting approaches within the European and US-American academic discipline of history: New Global History and Subaltern Studies. New Global History aims to overcome Eurocentrism by focusing on the history of "Spaceship Earth" (Bruce Mazlish) instead of national histories. By confronting this suggestion with the criticism of the Subaltern Studies Group—mainly from Dipesh Chakrabarty and Gayatri Chakravorty Spivak—the article shows the profound but hidden influence of Western historical thinking on New Global History. It becomes obvious that New Global History has not succeeded in overcoming Eurocentrism due to its concentration on anonymous global structures and its failure to include individual experiences. The Subaltern Studies' approach to history, on the other hand, fails to grasp global structures.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plea for a "global history from below". This global history from below ties in with the challenge of Subaltern Studies and applies their criticism to global history. What historians have to do is show how the local is formed globally and, at the same time, how the global is put together locally. The article assumes that this is only possible when the historian discloses the "centrism" of his or her narration by making it explicit—be it a "centrism" focusing on Europe, Asia, or whatever region in the world.

Key Words: New Global History, Subaltern Studies, Eurocentrism, Provincializing Europe, Global History from Below

· 논문투고일: 2010년 2월 5일 ·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7일 · 게재결정일: 2010년 4월 15일

[원문]

New Global History and the Challenge of Subaltern Studies

— Plea for a Global History from Below

Angelika Epple*

The most pressing problems we are facing today are those caused by the effects of globalisation. This is not just true for environmental developments like global warming or pandemics. As Arjun Appadurai has recently argued in his book “Fear of Small Numbers”, it is also true for large-scale violence, ethnic cleansings and terror in different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¹⁾ Even though these battles quite often appear as local conflicts, they are also a kind of response to the process of globalisation. Globalisation combines global developments with local effects as well as local developments with global effects.

In the US and Europe, globalisation has not always been perceived as a merging of the global and the local. Only some thirty years ago, it appeared to be the good side of (Western) modernisation. Globalisation was part of a successful “export” story. It seemed to be paving the way for global democracy, prosperity and for an extension of economic growth to the so-called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When globalisation became a buzzword in the 1970s, there was also a growing demand for

*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Bielefeld(aepple@uni-bielefeld.de)

1) Arjun Appadurai, *Fear of Small Numbers: An Essay on the Geography of Anger*, Duke University Press, 2006, p.2f.

experts who could explain how best to face this worldwide process. These experts were primarily economists, political scientists or sociologists, and – I don't have to add – they were all based in the US or in Europe.

For them, globalisation seemed to be a mostly economically determined process that fostered interactions, communication, transfer, mobility and so on. When the Iron Curtain fell an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negative sides of globalisation came to the fore. The voices of its critics, who, of course, had accompanied the discussion from its beginning, became louder. For them, globalisation was gradually revealing its dark side. They interpreted the new dimension of the exploitation of both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environment as the outcome of a new form of imperialism following the end of colonialism. In their eyes, globalisation not only provoked a commercial merging of the world, but also a hegemonic cultural homogenisation. "McDonaldization"²⁾ became a synonym for this judgement. The epoch of "happy homogeneity"³⁾ had come to an end.

Despite all contradictions, both views and interpretations of globalisation had a lot in common. Firstly, globalisation appeared as an anonymous process. Secondly, both perceptions assumed that hidden factors were driving globalisation, and that these factors were based in the West; and thirdly, globalisation did not seem to have any predecessor. The process of globalisation attracted attention to only recent changes in the world. Consequently, history seemed to become dispensable.

This is only one part of the story, however. Following the remarks of

2) George Ritzer,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An Investigation into the Changing Character of Contemporary Social Life*, Thousand Oaks/California, 1993.

3) Anthony G. Hopkins, *Global History: Interactions between the Universal and the Loc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6.

Patrick Manning, it was not long before students in the US started to ask for courses in "world history".⁴⁾ From the 1980s onward, this sub-field of history gained new terrain. Of course, "World History" was not a newly invented approach. But it suddenly satisfied a growing demand. It is interesting to see that, initially, the world history project was also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ssumptions: globalisation appeared as a directed process of no return, a prolongation or even a radicalisation of Western modernisation. One important difference was, however, that history came back into the game. Only analysing present events turned out to be too limited for understanding globalisation.

Unfortunately, the academic discipline of history was still subject to its old problems, even though most considered that they had been overcome by this time. Priority was given once again to the histories of anonymous structures like the history of industrialisation, institutionalisation, infrastructures, of financial transfers and economic exchange. This priority led to the return of a grand narrative, which was, in a nutshell: "the West and the Rest".⁵⁾

In my perception, this is the starting point or let us say the mutual enemy of two conflicting approaches within the European and US academic discipline of history: The New Global History and the Subaltern Studies Group.⁶⁾

In the following, I would like to characterize these two positions a little bit more profoundly. I shall start by listing the main arguments of

4) Patrick Manning, "Nordamerikanische Ansätze zur Globalgeschichte," in Birgitt Schäbler ed., *Area Studies und die Welt. Weltregionen und neue Globalgeschichte*, Vienna, pp.59-89.

5) Stuart Hall, "The West and the Rest: Discourse and Power," in Stuart Hall, Gieben Bram eds., *Formation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pp.275-320.

6) The Subaltern Studies journal first appeared in 1982.

Bruce Mazlish, one of the most prominent protagonists of New Global History. Then I shall contrast his criticism with arguments by Dipesh Chakrabarty and Gayatri Chakravorty Spivak, two prominent protagonists of the Asian Subaltern Studies Group. Subsequently, I shall elabor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onclusion, I shall argue how some of the subaltern's arguments can be applied to global history. Put briefly, I shall make a plea for a "global history from below".

1. Global History

Following Bruce Mazlish, World History gained momentum after World War II. As he writes in his programmatic essay on "*Global History and World History*", World History was an outcome of the recognition that the European perspective was no longer viable.⁷⁾ A closer look at his argument questions, however, whether Mazlish really rejects the deeply Eurocentric perspective of the World History approach.

This is how his argument goes: The concept of "World" goes back to Middle English. At that time, it designated "human existence". From there, concludes Mazlish: "its central reference is to the earth including everything and everyone in it [...]. For many, the discovery of the New World marked the advent of world history. More recently, a first, a second, and a third world have been discerned, demarcating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⁸⁾ Such usages, indeed, could not be replaced by

7) Bruce Mazlish, "Global history and World History," in Bruce Mazlish and Akira Iriye eds., *The Global History Reader*, New York, London: Routledge, 2005, pp.16-21. A longer version of the article under the title "New Global History" is available online: <http://web.mit.edu/newglobalhistory/articles.html>

the term "global". Neither would it make sense to speak of a "New Global" instead of "New World" after 1492 nor of a "third global" instead of "third world".

What Mazlish does not clarify is that his definition of "World History" simultaneously shows its inherent Eurocentric perspective. If we speak of the "first", the "second" and the "third world" as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we take the result of a specific historical development in Europe and the US as an ideal type in the Max Weberian sense. European and US history become a normative guideline for the evaluation of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This view always includes a judgmental statement in so far as some world regions have *not yet* caught up with the West and others *never* will. If we were to take a more neutral stance, we would have to acknowledge that the so-called "New World" already existed before 1492; there was nothing "new" for its residents. The Americas are no younger than Asia, Africa or Europe. The world might be divided into different worlds, and there are, indeed,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but it seems improbable that all parts of the world will follow the development that one part has already gone through.

If we wanted to recover Max Weber's understanding of history at all, we would have to use Shmuel Eisenstadt's concept of "multiple modernities". This concept sticks to the concept of modernity derived from readings of Max Weber while simultaneously trying to liberate it from its Eurocentric implications.⁹⁾ Eisenstadt's study on "Multiple modernities" raises other problems, however. He holds, for instance, to the idea of homogeneous, clearly definable world regions. This is a stance the subaltern studies group would seriously question, as I shall

8) Mazlish, "Global History," p.18.

9) Shmuel Eisenstadt, "Multiple Modernities," in *Daedalus*, vol.129/1, 2000, pp.1-29.

discuss later. For them, there is no such a thing as homogeneous entity, or, as Chakrabarty puts it, the concept of modernity *is always* an outcome of Eurocentric historical thinking.

Even though Mazlish fails to point out clearly the implicit Eurocentrism of the World History terminology, he feels uncomfortable with the concept. This is what underlies his wish to replace the term “world” by the term “global”. What does, according to Mazlish, “global” mean in contrast? In his words, global “points in the direction of space; its sense permits the notion of standing outside our planet and seeing ‘Spaceship Earth’. [...] This new perspective is one of the keys to new global history, where, indeed, a new space/time orientation is observable.”¹⁰⁾ New Global History does not deal with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in the past. New Global History is only the history of the globalisation process. In another article, he defines New Global History as follows: “New Global History becomes the study of a wide range of dynamic factors or processes that are encompassed by the word ‘globalization’, and must be understood in terms of a new and evolving analytic method and a particular body of data.”¹¹⁾ According to Mazlish, the main subjects of New Global History are processes that are “best studied on the global, rather than a local, national, or regional level.”¹²⁾

Let me briefly summarize so far. Mazlish expresses convincingly that Global History in contrast to World History is not concerned with just

10) Mazlish, "Global History," p.8.

11) Mazlish, Bruce, As yet, this article has appeared only in Spanish, as "La historia se hace Historia: la Historia Mundial y la Nueva Historia Global," *the Annual, Memoria y Civilizacion*, 4, 2001, pp.5-17. For an authorized translation into English, see website of the NGH (New Global History Website) <http://web.mit.edu/newglobalhistory/articles.html>

12) Mazlish, "Global History," p.9.

anything in the past, it focuses on the process of globalisation. Mazlish's notion of “Spaceship Earth” expresses the growing awareness that we are all living on the same planet and that the most urgent problems can only be solved on a global level.

Mazlish's notion that we have to overcome Eurocentrism is also absolutely appropriate – even though it is not cutting-edge. Talk about how to avoid Eurocentrism has accompanied the discussion since history became an academic discipline in 19th century Europe and the US. What Mazlish's argument unwillingly reveals, however, is how deeply Western thinking about history is already Eurocentric. If we take his metaphor “Spaceship Earth” seriously, we have to ask who would be standing outside our planet? Who would be seeing and describing global history? Where would he (or she?) come from? If we try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quickly realise that the problem of Eurocentrism cannot be solved by introducing a somehow superordinate position of a (global) historian. Writing history is never a selfless enterprise. There is no theoretical position from which a global historian could speak for all people and individuals on earth. We can even push this argument a bit further. Mazlish's call for a global historian outside our planet relies on a concept of scientific objectivity that can be traced back to historiographical discussions in 19th Century Europe. This concept later was exported throughout the colonized world. Since then, it has dominated academic history writing worldwide. Let me put off until later the discussion of Chakrabarty's criticism of Western historical thinking, however.¹³⁾ At this point, I would like to summarize that in this perspective, New Global History also failed to solve the problem of dealing convincingly with

13) See for example, Dipesh Chakrabarty, "A Global and Multicultural "Discipline" of History," in *History and Theory*, Vol. 46, 2006.

Eurocentrism.

In a book and several articles on "*Provincializing Europe*", Dipesh Chakrabarty made this point very clear. This already brings me to my next point, the Subaltern Studies Group.

2. The Subaltern Studies Group

The Subaltern Studies Group has bee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overcoming Eurocentrism since its book series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1982. However, it is interesting to see that overcoming Eurocentrism was never their objective, but an effect that accompanied their main issues. According to Partha Chatterjee, one of the series' editors, they initially had two main concerns: "One w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litical objectives and methods of colonial and nationalist elites on the one hand and those of the subaltern classes on the other. The second was the autonomy of subaltern consciousness."¹⁴ These two main issues have been transformed during the last 30 years, and the concern with an anonymous subaltern consciousness or with the subaltern as an active historical agent was abandoned.¹⁵ Even th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subaltern has broadened, Antonio Gramsci's concept of the "subaltern", with his understanding of "hegemony" and the role of intellectuals in creating this very hegemony remained an important point of reference.

14) For a concise overview of the development of the Asian Subaltern Studies Group, see Partha Chatterjee, "A Brief History of Subaltern Studie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 22, London, 2001, pp.1537-1541; Gunilla Budde, Sebastian Conrad, Oliver Janz eds., *Transnationale Geschichte, Themen, Tendenzen und Theorien*, Göttingen, 2006, pp.94-105. here, p.95.

15) Ibid. p.99.

Up until today, eleven more volumes have appeared trying "to highlight subaltern themes in South-Asian history."¹⁶ It would go far beyond the scope of this article to go into more details on Gramsci's concept and its increasing adaptation by the Subaltern Studies Group. Due to the fact that the Subaltern Studies Group is more of a project than a school of thinking, I shall examine only some positions and assumptions that I have found helpful and seminal for my own work as a German historian. I would also like to admit that I am no expert on Indian history. Notwithstanding, I am deeply convinced that global history, be it of German, European, US-American or whatsoever origin, has to undergo a profound change.

To start with, I shall discuss Chakrabarty's criticism of Western historical thinking. Then, I shall move on to Gayatri Chakravorty Spivak's radical challenge of the subaltern's voice.

"Europe", says Chakrabarty, "remains the sovereign, theoretical subject of all histories, including the ones we call 'Indian'".¹⁷ The first everyday symptom that Europe is a "silent referent" is what he calls the "asymmetric ignorance". While a European historian might ignore non-European history, a historian of another world region cannot return this gesture.

In a review essay on an anthology of Western historical thinking, Chakrabarty illustrates the paradox situation of "asymmetric ignorance" with a historical example: The European academic discipline of history gained a hegemonic position in 19th century India and presumably also

16) "preface," *Subaltern studies journal*, Vol. 10, 1999.

17) Dipesh Chakrabarty,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ity and the Critique of History," *Cultural Studies*, vol. 6 no.3, 1992, p.337.

in other non-European societies. Before the encounter with the Western version of history writing, Chakrabarty explains, all societies had of course their own traditions of thinking and of narrating past events. The real puzzle is, however, "why did we end up with broadly the same global culture of professional historians all over the world?"¹⁸⁾

The answer to this tricky question lies in the history of the discipline itself. Western historiography modelled after the German 19th century historian Leopold von Ranke, introduced a scholarly methodology that placed the historian in the position of a judge. The historian became the only person who could ascertain professionally whether a past event *really* had taken place. How is that? Due to his scholarly methodology, the historian now gave evidence through his documentary studies, through his critique of the sources, and – derived from my own studies I would like to add – the historian had to prove the truth of his narration by referring exclusively to written sources and by degrading contemporary oral traditions.¹⁹⁾ This shift in giving evidence had far-reaching consequences. The way historians proved the truth became the most

18) Dipesh Chakrabarty, "A Global and Multicultural "Discipline" of History," *History and Theory*, vol. 46, 2006, p.104.

19) In quoting the historian Masayuki Sato, an expert in Chinese historiography, Chakrabarty also added to the list of elements of Ranke's program the request for causal explanation. I believe this is misleading. Ranke, in fact, was engaged with liberating the writing of history from the logic of causality. This opens another discussion, however, and I would prefer to leave it out here. Recently, I have dealt with this question more profoundly in, Angelika Epple, *Questioning the Canon: Popular Historiography by Women in Britain and Germany(1750-1850)*; Sylvia Paletschek ed., *Popular Historiographies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German Historical Perspectives Series, Berghahn Books, forthcoming 2009.) A monograph focusing on German Historiography between the epoch of Enlightenment and 19th century historicism has as yet only appeared in German: Angelika Epple, *Empfindsame Geschichtsschreibung, Eine Geschlechtergeschichte der historiographie zwischen Aufklärung und Historismus*, Köln, Weimar, Wien, 2003.

important marker for highlighting the difference between popular and professional historians. Popular historical narrations were degraded and excluded from national canons of historiography.

These exclusionary and degrading factors of Western historiography were exported to India and other societies in the 19th century when colonial governments introduced their models of universities.²⁰⁾

This new kind of history was only possible due to a "crucial shift in the institutional site for the production of history".²¹⁾ The university became the only place for doing valid and genuine history. Masayuki Sato, a contributor to the aforementioned volume on Western historical thinking, points out this development for China, and Chakrabarty backs up his findings for India. I am convinced that the so-called professionalization of history led to a narrowing of the field worldwide. Popular authors and subjects beyond political or economic history as well as women historians in general have been excluded from academic history writing for many years. This is not only true for China and India, but also for Europe. It is only recently that historians have started to go back to these excluded traditions, that they are beginning to analyse how this exclusion worked and also show its deeply gendered bases.²²⁾

Th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version of history writing to

20) Edward Shils and John Robert, in Walter Ruggie ed., *Geschichte der Universität in Europa*, vol. III, München, 2004, p.194.

21) Dipesh Chakrabarty, "A Global and Multicultural "Discipline" of History," *History and Theory*, vol. 46, 2006, p.106.

22) The exclusionary and deeply gendered effect of Ranke's methodology was firstly shown by Bonnie Smith. See Bonnie Smith, "Gender and the Practices of Scientific History: The Seminar and Archival Research in the Nineteenth Centu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0, 1995, pp.1150-1174. For European historiography see also, Mary O'Dowd, Ilaria Porciani eds., "History Wopmen," *Storia della Storiografia*, vol. 46, 2004; Angelka Epple, Angelika Schaser, *Gendering Historiography. Beyond National Canons*, Frankfurt a. M., New York, 2009.

non-Western societies such as India generated the aforementioned asymmetry paradox. Chakrabarty hopes that traces of an Indian traditio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cientific style” might be found in marginalized popular narratives. He concludes by referring to the volume’s editor Jörn Rüsen: “‘Historical matters’”, says Rüsen, “‘come back with a vengeance’ through mass media.”²³⁾

It is definitely true that in Western societies, the global mass media are currently challenging the dominance gained by academic history two hundred years ago. It is no coincidence, indeed, that the question of historical truth has been put back on the agenda of heated controversies within the academic discipline.²⁴⁾ The growing influence of mass media might lead to an accommodation between academic history and popular culture in different social and national contexts, as Chakrabarty suggests. In this essay, Chakrabarty leaves the door open for a possible emergence of a “global culture of professional history that will not be identical all over the world.”²⁵⁾ The early Subaltern Studies Group seems to have been less confident about this.

In her well-known essay “Can the subaltern speak”, which first appeared in 1988,²⁶⁾ Gayatri Chakravorty Spivak deals mainly with the question of how the subject of the third world is represented within the

23) Dipesh Chakrabarty, “A Global and Multicultural “Discipline” of History,” *History and Theory*, vol. 46, 2006, p.109.

24) Dipesh Chakrabarty, “History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Keith Jenkins, Sue Morgan, Alun Munslow eds., *Manifestos for History*, Abingdon, New York: Routledge, 2007, pp.77-87.

25) Dipesh Chakrabarty, “A global and multicultural “discipline” of history”, *History and Theory*, Vol 46, 2006, p.109.

26) The 1988 version was already a revised version of a lecture given and printed in 1985. It was then reprinted in *Colonial Discourse and Post Colonial Theory*, and an as yet final version in 1999, which appeared in her book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here she mentions the emergence of a new kind of subaltern (p.274)

Western discourse. She is hard on the Western critical tradition and postcolonial theory. To put her main point simply, she harshly criticises the way that the French philosophers Michel Foucault and Gilles Deleuze fall back into an “essentialist, utopian politics.”²⁷⁾ Her main argument is that “Two sense of representation are being run together: representation as ‘speaking for’, as in politics, and representation as ‘re-presentation’, as in art or philosophy.”²⁸⁾ This misconception of the term leads Foucault and Deleuze to assume that “the oppressed can know and speak for themselves.”²⁹⁾ In contrast, Spivak argues that the subaltern identity is not a somehow autonomous or essential entity, and does not even take the form of a subaltern consciousness. This makes it difficult to resist the imperialistic project. According to Spivak, it is not possible to get the “real” voice of the oppressed to talk. She also identifies some other problems that I find very interesting in the context of global history. An important objection, for instance, goes back to Edward Said’s study on orientalism.³⁰⁾ Like him, she also rejects the “epistemic violence” that accompanies the constitution of the colonial subject as the Other. She goes one step further, however. It is not only the asymmetric obliteration of the traces of that Other in its precarious subjectivity that she denounces. It is also the homogenisation of this group. Of course, it is the Indian elites that make it possible for European intellectuals to hear the voice of the Other. “But one must nevertheless insist that the colonized subaltern *subject* is irretrievably heterogeneous.”³¹⁾

27) Gayatri Chakravorty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Cary Nelson, Lawrence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pp.271-313. here, p.276.

28) *Ibid.*, p.275.

29) *Ibid.*, p.279.

30) Edward Sai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8.

According to my reading of her essay, another important objection deals with the limited results of both micro-studies and macro-studies. Spivak convincingly points out that subject formations and global structures are closely linked. The analyses of the relation between global capitalism and nation-state alliances cannot account for the microstructures of power. "To move towards such an accounting, one must move towards theories of ideology – of subject formation that micrologically and often erratically operate the interests that congeal macrologies."³²⁾ With this appeal for an analysis that links global structures to subject formations and vice versa, I would like to come to my last point today. Please let me conclude with a very brief plea for a combination of the two contrasting approaches to history.

3. Global History From Below

The growing demand for global history is a result of globalisation. Today's problems can only be solved on a global level. This supposes a more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ity of the process of globalisation. Global history is an attempt to accommodate that demand by simultaneously broadening and narrowing the limits of the academic discipline. It is broadening the limits in so far as it deeply acknowledges that the overemphasis on Western history has been a dead end. It is narrowing the limits of the academic discipline in so far as it focuses on the history of globalisation. Bruce Mazlish's program does not dwell

31)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p.284.

32)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p.279.

deeply enough on dealing with Eurocentrism, however. From Dipesh Chakrabarty we can learn that *Provincializing Europe* means more than extending the breadth of the subject. It is necessary for professional historians to start to think about the Eurocentrism of their own vocabulary as well as of their concepts of historical thinking. This requires us to go back to the times when different local traditions all over the world were being excluded from scholarly historiography. From Gayatri Chakravorty Spivak, we can learn that Othering not only leads to an obliteration of the subaltern but also to his homogenisation. This is even more the case when global structures are not linked to individuals or local circumstances. Subaltern studies carry the problems of global history to extremes. On the one hand, the members of the Subaltern Studies Group argue that global history fails to describe different local and individual experiences by focusing on anonymous global structures. On the other hand, they do not offer a satisfying solution: Even if historical research tries to make individuals visible, even if it shows that all subjects and objects of history are already always heterogeneous and diverse, historical research cannot reveal the lost voices of the subaltern. And, what's even worse, by approaching subaltern voices, intellectuals take part in the making of subalterns.

Nevertheless, I believe that using their claims helps to identify weaknesses in the global history concept and goes straight to the heart of the problem. This leads to a concept of global history that I would like to call "global history from below". It cannot offer a complete solution to the dilemma described above.³³⁾ But it ties in with Spivak's request for

33) In his "brief history of subaltern studies", Chatterjee stresses not only the similarities of subaltern studies and the "history from below" approach but also the differences. He states that "history from below" never "persuasively challenged the existence,

an analysis of both global structures and the (local) subject formation. Global history from below is aware that the subaltern cannot speak in a certain sense. If, eventually, the voice of the subaltern cannot be heard, there only remains a meek request: "What became far more productive", says Chatterjee, "were new strategies of reading the conventional documents [...]."³⁴⁾

"Below" – if used in contrast to "global" – means starting the analyses with a subject-centred approach. Thus, global history from below is inspired by the subaltern studies group and also by the history from below discussions. It is important to underline, however, that it neither concentrates on the social history of the working class³⁵⁾ nor limits its fields of research to the investigation of the history of the subalterns, or of everyday life. "Below" should only designate the microlevel in contrast to global structures. If we investigate local elites and their entanglement with global processes, it still would be a history from below. In so far, global history from below borrows methodological tools from microhistory³⁶⁾ and combines it with global questions.³⁷⁾ What

stability or indeed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capitalist modernity itself." Chatterjee, "Brief History," p.8. He was right to bring to mind the studies taking the history from below approach of that time.

34) Chatterjee, "Brief History," p.96.

35) The history from below approach was developed as a result of the French Annales School in the 1960s. It is closely connected to E.P Thompson's book 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which first appeared in 1963.

36) Carlo Ginzburg, "Micro-History, Two or Three Things That I Know about it," Carlo Ginzburg, John Tedeschi, Anne C. Tedeschi eds., *Critical Inquiry*, vol. 20 no. 1, 1993, pp.10-35.

37) Some results are already presented or are forthcoming, see for instance, Lara Putnam, "To Study the Fragments/Whole: Microhistory and the Atlantic World," *Journal of Social History*, 39. 3, 2006, pp.615-630; Angelika Epple, *Das Unternehmen Stollwerck. Eine Mikrogeschichte der Globalisierung*, Frankfurt a. M., New York, 2010.

historians have to do is show how the local is formed globally and at the same time, how the global is made up locally.

Notwithstanding, global history from below ties in with the subaltern studies group's understanding of heterogeneity and applies it to the Western discourse as well. The so called Western discourse is no more unanimous than the subalterns' discourse – or their silence.

What historians should do is mark the narrow limits to the validity of their historical narrations. They should include popular subjects, resist homogenisation of whatever group, and, most of all, they should be aware of the deeply inscribed Eurocentrism of Western historical thinking. Overcoming Eurocentrism or Sinocentrism or whatever "centrism", seems to be a mission impossible. What we should do instead – and here I'd like to borrow the title of a book by the philosopher Robert Brandom and apply it to the dilemma discussed here – what historians need to be doing with Eurocentrism is: making it explicit.³⁸⁾ We then might be ready to read what is said in a new way and also to hear what is not said. This could then lead u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globalisation.

38) Robert Brandom, *Making it Explicit: Reasoning, Representing, and Discursive Commit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